

“빛고을 광주 밝힐 燈 만들어요”

광주불교연합회, 전통등 강습회 개최

전통등(燈)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강습회가 빛고을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13일부터 3일간 광주불교회관 2층에서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지원으로 ‘2017 빛고을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를 열었다. 15개 사찰과 단체에서 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이번 강습회에는 불교사물인 목탁, 법고를 비롯해 달팽이, 산 등 다양한 형태의 등 만들기 과정이 진행됐다.〈사진〉

전영일 공방 전통등 작가들과 함께 4개조로 편성된 강습회는 13일 첫날 골조 만들기, 14일 배접, 15일 채색과정으로 매일 9시간씩 총 27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강습회에는 광주 이외에도 화순과 완도사암연합회에서 참여해 전남지역 등 만들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증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당시 간절한 마음으로 등불을 밝힌 여인의 불빛이 2500년 지난 지금도 이야기되듯이 한국의 전통문화인 전통등이 소멸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며 “광주는 빛을 상징하는 도시로 전통등을 보급하고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습회에 참여한 만덕사 신도 서정남 불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한지를 골조에 배접하고, 불을 켜면서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됐을 때는 참여한 강사님과 10명의 조원들이 정말 즐거워했다”고 참가소감을 전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015년 1월 등 강습회를 시작으로 광주불교회관 지하에 공방을 만들어 행렬등과 장엄등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현재 150여 명의 강습회 참가자와 10여 명의 전통등 전문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절 앞 잔치로 외로움 해소되길”

연꽃마을 자비원, 암환자 · 독거노인 돕기 위안잔치



전주시 노인복지봉사회 연꽃마을 자비원(대표 정인)이 민족 명절 설을 기념해 암 환자 및 독거노인 150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했다.〈사진〉

경로잔치는 1월 19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정인 스님, 소담불교박물관장 법성 스님, 임현기 한국노인복지봉사회장, 이창승 르윈호텔 회장, 전주시 사회복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 수 한방병원의 건강상담과 아리랑 예술단의 위문공연, 나눔위안잔치, 장기자랑,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정인 스님은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할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마당을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준비한 선물과 경로잔치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사회복지과를 통해 추천된 독거노인들에게는 지역 내 독지가와 업체들이 후원한 쌀 20kg, 라면 1상자, 발효홍삼엑기스, 황칠엑기스, 허리 및 무릎 보호대, 건강식품과 응급 구호약품, 생활필수품 등 총 7천여만 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됐다.

한편 정인 스님은 1996년 효자동에서 의료기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사랑방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암 환자 등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2002년부터 아중리에 연꽃마을 자비원을 열고 노인과 무연고 아동 등을 보살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老비구니 수행관 건립한다

연말 템플스테이 숙소 보수해 용도 변경키로

1월 16일 교구종회서 밝혀
열악한 사암 재정지원 방안
장기적인 포교대책 논의도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24교구 교구종회 모습.

종단 최초로 승려노후수행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노(老)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마을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1월 16일 지장보궁서 열린 24교구 교구종회에서 비구니스님 수행마을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오는 11월경 자연의 집 터에 건립 중인 템플스테이 수련관이 완공되면 현재 템플스테이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용도에 맞게 보수해 노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수행마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행마을에 별도의 식당을 마련해 평생을 가람수호와 전법에 진력한 노스님들이 수행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원공 스님과 성락 스님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2017년 주요 종무계획과 종무보고, 종무계획, 선운사 불사 및 사업계획 등의 예결산 안을 결의했다. 이외에도 승려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과 승려수행연금 지원에 관한 교구종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산촌에 위치하고 있어 가람수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사암들을 파악해 일정규모의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불교신도 감소에 대비해 불교회관 건립, 불교대안학교의 설립 등 장기적인 포교정책 마련에 나서 교구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 강구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도솔암과 내소사, 내장사 등 3개 사찰에 대해 총 5억 원의 특별분담금을 부과, 교구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종무행정 모범사찰에는 내소사(주지 진성), 포교우수사찰 임실 상이암(주지 성효), 불사우수사찰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선정됐다.

경우 스님은 “최근 불자 수 감소, 신도 조직력 약화 등 어려운 교계상황을 감안해 전 종도가 서로의 지혜와 자비를 나누며 불법홍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운사는 교구종회에 앞서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성원당 운기대종사 35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1월 16일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에는 대우 스님을 비롯한 운기 스님 문도들과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대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은사스님의 35주기 추모재를 마련해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석전 영호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선운사 주지와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과 호남 불교중흥에 이바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난한 미얀마 아이들, 불제자로 거듭나

광주 성거사, 1월 6~11일 미얀마서 신뿌의식 지원



광주 성거사 지원 덕분에 신뿌의식을 치르게 된 아이가 삭발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출가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미얀마 아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다.

광주 성거사(주지 혜공)가 운영하는 바라밀봉사단은 1월 6~11일 총 6일간 미얀마 양곤지역에 위치한 아유디가사원(원장 아리야오운타)을 방문, 신뿌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30여 명의 아이들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학용품 · 의약품을 전달했다. 또 연꽃등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라밀봉사단원들은 2012년부터 5년째 아유디가사원에 후원물품과 지원금을 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한화 10여만 원의 경비가 없어 신뿌의식을 미뤄온 30여 명의 아이들을 지원했다. 또 1대1 결연을 맺은 아이들을 직접 방문해 학비와 생활비를 전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도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나눠줬다.

성거사 주지 혜공 스님은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유디가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신뿌의식을 지원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디가사원 아리야오운타 스님은 “많은 분들이 미얀마까지 찾아와주신 덕분에 수계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 도움 주신 바라밀봉사단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이러한 인연으로 불교의 미래가 더 빛나고 번창할 것을 믿는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의식을 끝낸 씬삐자(13) 군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를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행복하다. 부처님 제자로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뿌의식은 미성년 남자들이 단기간 승가에 출가하는 의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아이들이 마을을 돌면서 출가를 알린 후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는 것으로 시작한다. 최소 3일에서 길게는 몇 달간 절에서 출가생활을 한다. 마을전체가 준비하고 함께 축하하는 공동행사로 미얀마 아이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로 여겨지기도 한다. 불교국가인 미얀마 남자들은 일생에 한 번 반드시 출가를 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아원과 학교를 운영하는 아유디가사원은 현재 200명의 어린이 · 청소년 출가자와 인근에서 통학하는 100명의 학생 등 총 300여 명이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 출가자는 대부분 고아이며, 나머지는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절에서 맡아 키우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불사, 새해 맞아 자비의 쌀 전달

1월 18일 경암동주민센터에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신도들은 1월 18일 군산 경암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비의 쌀 50포대를 전달했다.

이 자리서 종명 스님은 “설을 앞두고 명절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을 도울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십시일반 모은 불자들의 정성이 설 명절을 맞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불사는 지난 1984년 창건한 이래 10여 년 동안 방생법회를 축소하고, 연중 3~4차례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비의 쌀, 생활필수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종 도 모 집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종단의 발전과 사찰의 불사를 도와주시며
함께 뜻을 같이 하실 종도 및 사찰을 모십니다

종정 : 혜인 법정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 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총 본 산 : 용선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2길 98-5)
● 입종문의 : ☎ 054)856-9555, 010-8571-0236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총무원장